

비례 투표 '조국' 15% 돌풍... 지지율 1~2%에 갇힌 새미래

꺾일, 총선 한 달 앞 여론조사
정부 지원론·견제론 엇비슷
여당후보 39%·민주당후보 35%
尹지지율, 2주 연속 39%

4·10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1%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3%p, 2%p씩 하락한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 대비 국민의힘은 3%p 떨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p씩 하락한 31%로 집계됐다.
주요 신당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6%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개혁신당은 3%였으며 나머지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은 각각 1%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 조사 결과도 정당 지지도와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비례정당'(당명 국민의미래)이 37%,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당명 더불어민주당연합)이 25%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5%였다. 이어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각각 2%, 그외 정당 1%, 그리고 투표 의향 정

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이 13%로 나타났다.
비례정당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대부분(90%) 국민의힘 비례정당을 선택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표심은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62%)과 조국혁신당(26%)으로 나뉘는 모습이 었다. 중도층은 비례대표 정당으로 국민의힘 비례정당 32%,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 25%,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8%를 선택했다. 19%는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았다.
4·10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였다.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9% 대 51%다.
한국갤럽은 "최근 2주간 양대 정당 격차는 6~7%p지만 지난주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파악했을 때는 양당이 비슷했고 총선 결과 기대에서 여당 대 범야권 구도 역시 거의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와 동일한 39%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5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1당이 현실적 목표... 무능정권 심판"

"여당, 사면·돈봉투·극우 공천
민주당은 세대교체·공천혁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이번 총선 일은)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패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

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며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낫질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은 후보자들 사례를 거론하며 "사면·음란·돈봉투·천일·탄핵 비하·극우·양평도로 게이트" 공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 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 교체 등을 끌어냈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냈

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공천 잡음과 관련해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생살을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육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선 의석수 목표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 어떻게든 단 1석이라도 (이겨서), 우리가 1당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이고, 좀 욕심을 낸다면 151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전남 경선, 조력자 찾기 '합종연횡' 활발

'친명' 정의찬, 윤재갑 지지 선언

민주당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임박한 전남 선거구에서 '경선 조력자'를 찾기 위한 합종연횡이 활발하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대한 경선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의찬 당 대표 특별보좌관이 현역인 윤재갑 의원의 지지를 선언했다.
정 대표는 애초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학생운동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 연루 논란에 휩싸여 출마를 포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경선에서 맞붙는 윤 의원은 정 대표의 지지 선언을 통해 지지 기반 넓히기에 힘을 쏟고 있다.
여수 갑을 선거구에서는 주철현 예비후보(여수갑)와 조계원(여수을) 예비후보가 사실상 공동 선거운동을 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여수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여수갑·을 간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하고, 여수시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 협력의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여수 갑·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비롯, 3대 합의를 발표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국회의

원에 당선되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민주당과 여수시 발전에 매진하기로 합의했다"며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김희재 여수 을 예비후보도 이에 맞서 지난 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19개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회 지지를 통한 세(勢) 과시에 나섰다.
나주화순에서는 현역인 신정훈 후보에 맞서 손금주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천 탈락자 최용선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
목포에서도 전 시의원 10여명 등이 배종호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열고, 김태성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도 같은 선거구 공천 탈락자인 정승욱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을 계기로 판세 역전을 꿈꾸고 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된 최영호·조재환 후보가 현역인 김승남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둔 합종연횡의 경우 다른 후보들의 지지 기반을 흡수하면서 세 확대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는 반면 선거에 임박해 정치적 성향, 지지 기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합인 만큼 '1+1=2'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당 광주 서구를 양부남 공천

광주 서구를 지역구의 4·10 총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김경만 의원(비례)과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장을 꺾고 승리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광주 서구를 경선 결과를, 9일에는 의정부갑 등 4개 전략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3명에 대한 경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서구를 지역구에 민주당 현역의

원 없이 시민 100%로 결선 없이 진행됐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은 당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에게 패했다.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포함한 4개 전략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인 김민철 의원의 컷오프(공천배제)에 따라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의정부에서는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권혁기 당 대표실



양부남

정무기획실장과 임근재 예비후보를 꺾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경선에서는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이현욱 전 경기도 시공사 사장과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이기고 공천을 따냈다.
컷오프된 변재일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정원에서는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를 꺾고 본선에 올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공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린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기업부 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린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 위치